



월 1회 강사 초청 강좌·토크... 공개 녹음 넷째주 토요일 방송



강좌가 끝난 후 참석자들에게 사인해주는 한수산 소설가.



강준만 교수(오른쪽)와 김선균 기자의 토크 콘서트.

지치고 힘들수록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상에서 받은 상처는 일상으로 치유할 수 없고, 깊은 고독에서 오는 사유만이 진정한 의미의 위로를 주기에 최근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또 아울러 책읽기, 깊게 책을 읽는 날 밤은 지식인과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등이 덩달아 인기를 모으고 있다.

광주평화방송의 인문학 콘서트가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광주평화방송은 지난 4월부터 매달 유명 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는 인문학 콘서트를 열고 있다.

인문학 콘서트는 회원뿐 아니라 인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 '열린 인문학'을 지향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갈증을 해소한다'는 목표로 시작된 이 인문학 콘서트는 장르와 종교의 벽을 허물었다는 점도 의미 있다.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치유와 힐링'을 주제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평화방송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는 '인문학 콘서트'는 지난 4월 17일 소설가 한수산씨를 시작으로 5월 전북대 강준만교수까지 행사를 마쳤다.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 진행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자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구성

한수산·강준만·송경동... 문학·사회·예술 분야 망라 종교의 벽 뛰어넘어 21일 미항사 금강 스님 초청 "강사와 관객 쌍방향 소통" 명품 인문학강좌 만들겠다"

해 방청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수산씨는 일제강점기 징용 조선인의 슬픔과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들려줬다. 강준만 교수는 성공을 거둔 뒤 자신의 삶은 생각하지 않고 특권만 주장하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구조'를 꼬집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기회가 공평해야 하고, 모두가 '개천의 용'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의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해남 미항사 주지 금강스님, 9월 4일 희망버스 송경동시인, 11월 20일 광주 시립미술관 임종영 학예사 등을 초청해 문학과 사회, 종교, 예술 분야를 망라해 재미있는 인문학 이야기를 함께한다.

오는 10월 24일에는 '찾아가는 남도 인문학의 여로(旅路)'라는 주제로 콘서트 회원 80명과 함께 강진 영랑생가와 시문학 파기념관, 단산초당 등을 둘러본다. 시문학 파기념관이 마련한 '힐링 미니 콘서트'에 참석해 음악과 문학이 어우러진 이색 여행을 떠난다.

앞서 광주평화방송은 '인문학 콘서트'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회원을 모집해 신청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100여명을 모았다.

모든 강의 내용은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후 6시 이 방송의 '함께하는 세상 오늘' 프로그램에서 녹음 방송을 하고 있다.

광주평화방송 보도제작국 양복순PD는 "광주평화방송이 마련한 '인문학 콘서트'는 '일방 통행식'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고 있다"며 "현대인들에게 가문의 단비와도 같은 삶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명품 인문학 강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평화방송 5층 다목적홀에서 한 달에 한 번 영화상영을 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62-231-770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國唱' 김창환의 삶과 소리 세계 조명

광주 출생 임방울 외삼촌 창극 토대 마련한 어전 소리꾼 임방울국악진흥회 내일 세미나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속대머리'를 비롯한 다양한 소리로 민초들의 고된 삶을 어루만졌던 광주 출신 국창 임방울, 그의 외삼촌으로, 고종 앞에서 소리를 하고 협률사를 통해 다양한 창극을 무대에 올리며 판소리 문화의 터전을 닦은 국창 김창환. 두 사람은 한국 판소리 역사를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임방울 선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국창 김창환 선생의 예술 세계를 짚어보는 행사가 열린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5층 공연장에서 '국창 김창환의 삶과 소리 세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할 김세종(전남대 예술대 겸임교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분야 전문위원은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통해 생애 연대와 혈연관계, 음반 녹음과 공연을 포함한 예술활동, 소리 세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김창환의 삶을 일정 정도 복원해 낸다.

김 전문위원은 생애 연도에 대한 여러가지 '실'에 대해 당시 신문 자료를 근거로 1854년 나주 삼도면 양화리(지금의 광산구 대산동)에서 태어나 1939년 고향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창환은 '새타령'의 일인자인 서편제의 거장 이남치(1820~1892)와 판소리 이론에 밝았던 동편제 명창 나주 출신 소리꾼 박기홍(1845~?)과 이종사촌지간이다.

이남치와 정창일 문화에서 소리를, 신재효에게서 이론을 배운 김창환은 마흔 무렵부터는 궁궐에 드나들며 여러

차례 소리를 불러 고종의 총애를 얻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풍채가 빼어난 귀족형으로 기품있는 너름새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의 장기는 '홍보가' 중 '제비노정기'였다.

송만갑, 이동백 등과 함께 '근대 5명창'으로 불리는 그는 '협률사' 등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1915년 미국 빅타레코드사에서 '춘향가' 중 '옥중가'를 녹음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음반 작업도 진행했다.

김 전문위원은 특히 김창환이 창자와 고수 두명이 진행하던 판소리를 새로운 형태로 만든 '창극' 발전의 토대를 쌓은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1902년 공연한 '소춘대유회'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첫 창극이었다.

또 수탈당하는 민중의 현실 문제를 창작 창극화한 '최병두 타령'을 무대에 올리는 등 민족혼을 고취시키고 전통예술을 통해 한국인의 동질성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전문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향토사학자 김정호씨, 최동현 군산대 교수, 김영옥 광주 시립극단 예술감독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062-521-0731.

/김미은기자 mek im@kwangju.co.kr

가을을 부르는 가곡 부르기

테너 엄정형·강양은 공연... 24일 호신대 예음홀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21일 강숙자 오페라라인

'가을을 부르는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름다운 시에 멜로디를 부친 가곡을 다함께 부르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가곡 '목련화'하면 떠오르는 테너 엄정형씨가 광주 공연을 갖는다.

(사)문화예술협회서부지회는 엄정형씨를 초청,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음악회-내 사랑 목련화'를 진행한다. 24일 오후 7시 30분 호남신대학교 예음홀.

엄씨는 이날 무대에서 강양은 호신대 교수와 함께 우리 가곡 '정산에 살리라' '보리밭' '옛날은 가고' '없어도' 등을 부른다.



테너 엄정형 메조소프라노 강양은 소프라노 강숙자

또 5인조 클래식 앙상블 '퀸츠 콰텟'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모음곡을 들려주며 플루트스트 김윤희씨가 '행거리 무곡'을 연주한다.

티켓 가격 1만원. www.artgi.co.kr. 문의 062-384-2033.

매달 한차례 모여 가곡을 함께 부르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도 가을을 앞두고 8월 행사를 진행한다. 21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북구 서광신협 4층 강숙자 오페라라인.

이번 달의 주제는 '우리는 한 마리 사랑의 새다. 바리톤 김제선씨의 지도로 함께 박수진 시 김예경 곡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초대 성악가로 소프라노 강숙자 전남대 교수가 출연, '간다간다 하더니', '내 맘의 갈뿔'을 들려준다. 또 '들꽃향기'가 '그대 향한 마음'과 '님 마중'을 선사한다.

유영숙씨의 시 낭송 '아무도 강가에서'에 이어 끝나무 공연 무대로 정진희(광주 남초 2년)양이 '초간산간', '시골하루'를 부르며 회원연주로 남미영씨의 '사랑가', 박안수씨의 '만리향', 나인희씨의 '그대가 꽃이되면'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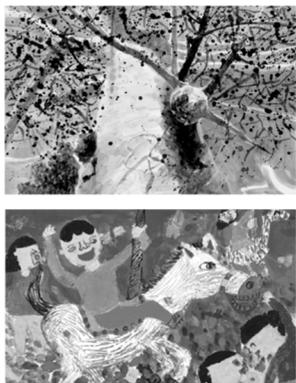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는 '성불사의 밤', '아무도 모르라고', '못되어', '정산에 살리라' 등을 함께 부르는 시간도 갖는다. 1만원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 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r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자가 작품 전시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88(입장료 무료)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미술부문 최고상 | 2006년 제51회-임술기(비야중3), 김민희(광주여고2) | 2007년 제52회-조은지(전남중3), 김해주(광주여고2) | 2008년 제53회-김재현(일곡초2), 김민정(광주중앙초4), 신재민(광주중앙초5), 정소리(전남중3), 이은주(전남여고3) | 2009년 제54회-이호현(동림초2), 김세민(광주교대부설초3), 정은재(신암초5), 이주희(광주경신중2), 진재영(첨단고2) | 2010년 제55회-김준서(마지초1), 임하리(순천남초2), 박지현(광주송원초3), 이세림(광주중앙초6), 이가영(일곡중2), 박상아(광양제철중3), 노하은(여수여고2), 김다영(호남상곡고2) | 2011년 제56회-최원창(진남초1), 박기은(유덕초3), 이시욱(매곡초5), 전혜주(광주북성중2), 범지선(수피아 여고2), 조아리(대성여고3) | 2012년 제57회-이예원(고실초1), 조은송(광주송원초3), 김민정(용두초5), 김민혁(장덕중3), 정윤미(살레시오여중3), 이인혜(광주여고1) | 2013년 제58회-심세경(금당초1), 권유선(광주계림초4), 정재윤(광주송원초6), 강민지(광주동성여중3), 정지윤(광주여고2), 박혜령(조대여고2) | 2014년 제59회-정윤실(광주송원초1), 김예린(광주계림초4), 정다연(운남초5), 정다연(대성여중2), 문지윤(장덕중3), 윤화인(전남여고2), 박혜령(조대여고3) | 2015년 제60회-김윤서(광주송원초2), 정요훈(장덕초3), 김민지(서광초5), 천미성(용두중3), 오승희(삼무고2), 박신영(광주여고2) | 2006년 제51회-김성희(광주팔곡초5), 박주연(동아여중2), 김지수(인현청량중3) | 2007년 제52회-조혜민(광주송원초2), 김하연(동아여중3), 정다윤(풍암고2) | 2008년 제53회-김민영(유안초4), 이주희(동아여중3), 한유나(대광여고2), 신미희(보문고3) | 2009년 제54회-최지윤(광주송원초1), 송상혁(송의중1), 백재열(인양여고3) | 2010년 제55회-박동현(두암초4), 조은(광양동초4), 황현웅(광주송원초5), 김소연(동아여중2) | 2011년 제56회, 차진우(광주송원초6), 김민빈(경신여고3), 김민정(경신여고3) | 2012년 제57회-김남현(광주송원초4), 심현지(문정여고3), 차나연(삼일여고3) | 2013년 제58회-전유민(유덕초4), 손상원(광주삼육초5), 정소영(대성여고3) | 2014년 제59회, 이상재(광주송원초4), 박민우(광주송원초6), 류강희(여도중3), 선혜경(금호중앙여고3) | 2015년 제60회-김지우(광주송원초5), 정지윤(동아여중3), 공해지(광주장덕고3) *수상당시 학교명과 학년을 표기하였습니다.

